

제75회 칸영화제 2관왕

한국영화,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후보에 오르지만 하면 어느덧 수상은 당연한 결과가 됐다. 칸영화제에 진출한 한국영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영화의 성과는 그간 세계무대를 꾸준히 노크한 결과이기도 하다.

글. 이은선(프리랜서 기자)

- 前 <스크린>, <무비위크>, 중앙일보 <magazine M> 취재기자



FESTIVAL DE CANNES



칸에서 펼쳐진 한국 영화의 밤

매년 5월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칸(Cannes)에서 열리는 칸영화제는 베를린, 베니스와 함께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다. 그해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될 만한 작품들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매년 세계적인 거장들의 신작부터 주목할 만한 신진 감독들의 작품이 이곳의 레드 카펫을 거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년은 칸영화제의 암흑기였다. 2020년은 개최 취소를 택했고, 2021년은 약식으로 열렸다. 올해는 칸영화제가 3년 만에 다시 정상 개최를 선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공통의 감각으로 영화를 다시 마주할 때라는 것. 75회를 맞은 칸영화제는 그렇게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동안 잊혔던 축제의 기쁨을 상기시켰다.

올해는 경쟁부문에 오른 두 편의 한국영화가 모두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하다. 그간 한국영화는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2000)을 시작으로 꾸준히 경쟁부문에 진출해왔다. 지난 2018년에도 홍상수 감독의 <그후>, 봉준호 감독의 <옥자> 등 한국영화 두 편이 경쟁부문에 오르긴 했지만, 한 해에 두 편 모두 수상한 것은 올해가 최초다.

박찬욱 감독은 신작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거머쥐었다. 한국의 감독상 수상 기록은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 수상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수상으로, 박찬욱은 한국 감독 중 칸영화제 최다수상자라는 기록을 갖게 되었다. 그와 칸의 인연은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때가 시작이다. 2009년에는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2016년 경쟁부문 초청작이었던 <아가씨>는 류성희 미술감독이 기술상에 해당하는 별칸상을 받았다.

<헤어질 결심>은 남편 살해 용의자가 된 서래(탕웨이)와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의 이야기다. 그들 사이에서는 짝은 의심과 더불어 묘한 애정이 감지된다. 그간 박찬욱 감독의 세계를 구성하던 파격과 폭력 대신 애수가 깃든 멜로이자, 색다른 형사 수사물이다. 이 영화는 올해 경쟁부문에 오른 21편의 작품을 통틀어 가장 높은 데일리 평점(3.2)을 기록했다.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은 <브로커>는 일본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연출작이지만, 한국 회사(영화사 집)가 제작하고 CJ ENM이 투자·배급하는 한국영화다. 영화의 소재는 아이들이 버려지는 ‘베이비 박스’다. 두고 간 아기를 다시 찾으러 온 엄마 소영(이지은), 돈을 받고 새로운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넘기는 상현(송강호)과 동수(강동원) 일당이 예기치 못한 여정을 함께 하는 과정을 그린 로드무비다. 송강호가 연기한 상현은 능청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다 의외의 결말을 만들어내며 서늘한 뒷맛을 안기는 인물이다.

그간의 역사가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2019년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시작으로 이듬해 초까지 수많은 시상식과 영화제를 휩쓸었던 <기생충> 열풍은 한국영화가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였다. 특히 고양 아쿠아 특수촬영 스튜디오(덕양구 오금동)에서 촬영된 <기생충> 반지하 집의 실감나는 홍수장면은 한국영화의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한국영화의 다양한 소재 접근과 장르적 역동성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헤어질 결심>과 <브로커>는 단순히 수상 결과뿐 아니라 한국이 콘텐츠 허브가 되어 아시아의 인적 자원과 자본이 결합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경이 빠르게 허물어지는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시도다. 이는 남은 2020년대를 주도할 흐름이자, 한국영화를 세계무대의 강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한 주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칸영화제에서 상을 수상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송강호 사진출처 : CJ ENM



한국영화 칸영화제 본상 수상기록

- 2002 — <취화선> 감독상 (임권택 감독)
- 2004 — <올드보이> 심사위원대상 (박찬욱 감독)
- 2007 — <밀양> 여우주연상 (전도연)
- 2009 — <박쥐> 심사위원상 (박찬욱 감독)
- 2010 — <시> 각본상 (이창동 감독), <하하하>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 (홍상수 감독)
- 2011 — <아리랑>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 (김기덕 감독)
- 2019 — <기생충> 황금종려상 (봉준호 감독)
- 2022 — <헤어질 결심> 감독상 (박찬욱 감독), <브로커> 남우주연상 (송강호)

